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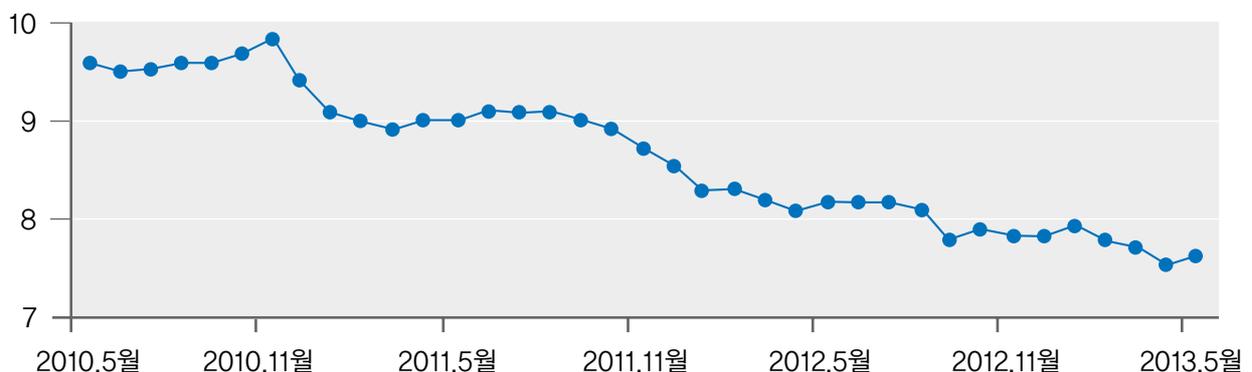
미국경제 어디로 가나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가능성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미국 증시가 하락하고 국제 금리가 상승하면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신흥국 주가와 환율의 변동성이 높아졌다. 미국 다우지수는 벤 버냉키 의장의 발언이 있었던 지난달 22일 15,307에서 6월 13일 14,995로 15,000선이 붕괴되었고 우리나라 코스피지수도 1,900선 이하로 떨어졌다. 동기간 원달러 환율은 1.8% 상승했고 인도 루피와 브라질 레알 환율은 각각 4.5%, 4.8% 급등했다.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논란은 고용과 주택시장을 중심으로 한 미국경제의 회복세에 힘입은 것이다. 미국의 1/4분기 경제성장률은 2.4%로 작년 4/4분기 0.4% 대비 크게 높아졌고 제조업 생산증가율도 5.0%로 전분기(2.5%)보다 두 배 상승했다. 또 1/4분기 미국 가계와 비영리법인의 순자산 가치(net worth)는 전기대비 3조 달러 증가한 70.34조 달러로 2007년 3/4분기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S&P Case-Shiller사가 집계하는 전국주택가격지수는 금년 1/4분기 중에 전년동기 대비 10.2% 증가하면서 작년부터 이어진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2010년 11월에 9.8%까지 치솟았던 실업률은 작년 하반기에 7%대 후반으로 떨어졌고 올 4월에는 7.5%까지 낮아졌다.

미국의 경기회복세가 올 3월에 시작된 시퀘스터(재정지출 삭감)의 영향으로 다소 약해지고 있다는 견해도 있다. ISM제조업지수는 2월 54.2에서 3개월 연속 하락하여 5월에는 기준치(50) 밑으로 떨어진 49.0을 나타내며 지난 4년여 만에 가장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일부 경제지표의 방향성은 엇갈리는 모습이다. 하반기 미국경제의 흐름과 연준의 정책변화가 주목된다.

◆ 미국 실업률 추이 ◆



세상 둘러보기



부산 송도 해수욕장

100주년을 맞은 우리나라 최초의 해수욕장

부산에는 해수욕장이 총 7개 있다. 지난 6월 1일 개장한 광안리, 해운대, 송도, 송정 해수욕장은 9월 10일까지 102일간 운영될 예정이며 개장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다대포, 일광, 임랑 해수욕장은 7월 1일 개장하여 8월 31에 폐장한다. 4개 해수욕장은 개장 후 불과 열흘 만에 230만 9천명의 피서객이 다녀간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만 2천명 늘어난 것이다. 특히 해운대는 200만 인파가 집중될 정도로 인기가 많다.



지금은 부산 최고의 해수욕장 하면 흔히들 해운대 해수욕장을 가장 먼저 떠올리지만 30~40년 전만해도 송도해수욕장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1964년 여름에 350만 명의 관광객이 찾았다는 기록이 남아있다(당시 부산인구는 140만명).

1913년 개장하면서 우리나라 최초의 공설해수욕장으로 지정된 송도 해수욕장은 올해로 100주년을 맞게 된다. 100주년을 맞이하여 예전 개장 당시 전국적 인기를 끌다 1987년 태풍 '셀마'로 유실된 6m 높이의 해상 다이빙대를 새로 설치하며 해안볼레길 달빛걷기(8월 17일), 비치 레슬링대회(8월 18일), 송도 즐겨樂(매주 토요일 오후 6시) 등 다채로운 행사도 진행될 예정이다.



1950년대 다이빙대 모습

좋은 글

사람은 신념과 함께 젊어지고 의욕과 함께 늙어간다.
사람은 자신감과 함께 젊어지고 공포와 함께 늙어간다.
희망이 있는 한 젊고 실망과 함께 늙는다.

- 사무엘 울만

▶ **국고채 금리 6개월來 최고치 기록**

→ 미국 양적완화 축소 전망에 따른 외국인 자금 이탈 우려 영향. 미국 등 선진국 채권 금리 상승으로 신흥국 투자 매력력이 약해진 상황에서 외국인의 급격한 국채선물 포지션 변경이 불안 증폭

▶ **일본 증시는 엔화 강세로 하락세**

→ 일본은행의 추가 경기부양책 부재 발표와 연방준비제도(Fed)의 양적완화 축소 가능성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지속돼 일본 및 미국 증시 하락

▶ **엔/달러 환율 하락세 지속**

→ 미국 양적완화 축소에 따른 국제금융시장 불안 우려 등으로 안전자산으로 인식되는 엔화에 매수세가 몰린 탓

● **금리**

	2012년말	2013. 4월말	2013. 5월말	6/7	6/10	6/11	6/12
기준금리	2.75	2.75	2.50	2.50	2.50	2.50	2.50
CD(91일)	2.89	2.81	2.69	2.69	2.69	2.69	2.69
통화안정증권(1년)	2.78	2.57	2.66	2.61	2.61	2.62	2.66
국고채(3년)	2.82	2.49	2.78	2.77	2.79	2.80	2.88
회사채(3년, AA-)	3.29	2.85	3.14	3.12	3.15	3.17	3.24
회사채(3년, BBB-)	8.80	8.47	8.75	8.75	8.77	8.79	8.86

● **주가**

	2012년말	2013. 4월말	2013. 5월말	6/7	6/10	6/11	6/12
KOSPI	1,997.1	1,964.0	2,001.1	1,923.9	1,932.7	1,920.7	1,909.9
애플	13,104.1	14,839.8	15,115.6	15,248.1	15,238.6	15,122.0	14,995.2
니케이225	10,395.2	13,860.9	13,774.5	12,877.5	13,514.2	13,317.6	13,289.3
상하이종합	2,269.1	2,177.9	2,300.6	2,210.9	-	-	-

● **환율**

	2012년말	2013. 4월말	2013. 5월말	6/7	6/10	6/11	6/12
원/달러	1,071.1	1,180.1	1,128.3	1,119.2	1,111.4	1,123.6	1,133.7
원/100엔	1,247.5	1,132.0	1,116.6	1,151.3	1,130.3	1,136.7	1,178.5
원/유로	1,416.3	1,451.3	1,471.4	1,482.3	1,468.1	1,489.3	1,509.5
원/위안	171.9	179.7	184.0	182.4	181.2	183.2	184.8
엔/달러	85.86	97.89	101.05	97.21	98.33	98.85	96.20